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

-제주도 경제를 망친 무능한 지도자가 '대권'에 나서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원희룡 지사님! 앞으로 대권가도에 도민이나 제주도는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정 운영에는 중앙정치 관여와 대권을 위한 유튜브와 예능방송이 더 중요하겠지요.
제주경제와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를 보냅니다. 서민경제는 추락하고 청년들은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육지로 정치행보를 다니는 열정, TV와 유튜브에 혼신을 다하는 지사님의 모습을 보며, 도민들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도민여러분, 제주경제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어려운 나라경제 상황에서,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 리스크' 까지 겹치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황의 먹구름이 깔린 지 오래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도정 6년 간 도민은 지켜봤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던 제주 청년들은 희망을 접었습니다. 일자리는커녕,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권리금도 포기한 채 문을 닫고, 중소상공인들은 내몰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꿈도 못꾸고, 일자리를 만든 투자기업조차도 反기업 행정과 '규제지옥'의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성장하던 경제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을 기대했던 제주도민의 희망은 날아갔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지금 제주도는 투자지옥, 국제규제도시란 반(半)기업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원희룡 정권 6년, 무능 • 무책임과 反기업적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발전을 좌절시킨 최초의 도지사입니다. **전진하는 제주역사를 역주행시키고, 대권을 위해 67만 도민과 제주미래를 희생시킨 정치인입니다.**

정치 9단인 원희룡 지사에게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지만 도지사는 서울로 예능방송 활동과 중앙정치 재개를 위해 제주도를 비우고 있습니다. 도지사실 옆에 유튜브 방송장비를 갖춰놓고 개인 방송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을 만나고, 투자유치를 위해 다녀도 모자란 판에 본인의 유튜브 방송 '원더플TV'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혼신을 다합니다. 작금의 제주 현실입니다.

원 지사는 일자리 3만3천개를 공약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해온 것은 세금을 써온 것뿐입니다. 세금으로 청년교육센터를 만들어 청년층 취업교육을 하지만 기업이 없는데 교육을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란 말입니까. 혈세로 만든 일자리 외에,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쫓아내는 反기업 정책**을 하며, 입으론 일자리를 만든다는 미사여구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잠시 여행을 위해 왔다가는 제주도의 경제실상은 모르시죠? 투자유치는 1위에서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질 나쁜 일자리만 있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살고 싶은 제주에서 떠나는 제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쉬기는 좋아도 살기는 힘든 제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쫓겨 가고, 기업 목을 조른 결과입니다. 양적 관광을 질적 관광으로 바꾸는 투자도 도지사가 나서서 좌절 시켰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도지사란 권력은 흉기와 같았습니다. 당선 후 원희룡 지사가 큰소리쳤던 첨단산업 투자유치는 허풍으로 끝났습니다. 투자유치 다변화로 중국을 빼고 일본, 중동, 미국, 유럽지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한 투자유치 정책은 빈손으로 끝나고, 결국 무능한 도지사로 확인됐습니다.

도민여러분! 원 지사 통치 동안 말잔치 외에 이룬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원 도정의 **'무능과 무책임'**에 **미래 관광산업**은 규제지옥과 직권남용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민생의 고통은 커져갔습니다. 최악의 제주경제 현실, 이것이 지난 6년 원희룡 도정의 민낯입니다.

진짜 최악은 제주도의 중요한 부가가치인 사람 • 자본 •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는 국제자유도시법의 신뢰를 없앤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제주정부에 커다란 불신을 끼쳐 사회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제주도가 됐습니다.** 제주도민이 선택한 도지사 원희룡! 현란한 화술을 구사하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말 뒤에 **반기업적 무법·무능 정치인**이란 실체를 도민은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주도를 도약시키는 건 힘들어도 추락시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권력남용 죄를 제주도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주미래 좌절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는 역사 기록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도 되풀이 됩니다. 투자지옥의 땅으로 변한 제주, 성장을 멈춘 제주, 법치가 유린된 제주, 법 위에 군림한 도지사. 행정을 농단한 도지사, **작금의 제주모습입니다. 중앙정부가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은 도지사 특권으로 전락했고, '국제자유도시' 이름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함정이 됐습니다. 관광지 제주도는 있어도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는 사라졌습니다.**

국민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 정치인 원희룡. **도민이 6년간 겪어온 그의 모습 10가지입니다.**

〈 도민이 겪은 원희룡 도지사 10가지 모습 〉

❶도지사 6년, 현란한 말로 책임을 회피해 민감한 정책을 피해간 도지사 ❷혈세쓰는 것 말고는 업적이 없는 무능한 도지사 ❸여론흐름을 절묘하게 타는 포퓰리즘 정치인 ❹"도민이 원하면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선거달인 ❺위기 때면 화려한 말로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❻경제와 기업을 모르고, 자본을 적대시하는 反기업 정치인 ❼블록체인 등 IT기술 내세워 미래지도자 이미지 선점하려는 정치인 ❽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내세워 환경이미지 구축하는 정치인 ❾법치보다 인치로 도정을 운영해온 무법도지사 ❿진보와 보수 양쪽의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도개혁 정치인

첫째 죄, '법의 신뢰' 무너뜨린 법치농단 죄

제주도민은 원 지사의 무법 • 무능을 '제주망친 5대 죄'**라고 말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한다며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도지사 입으로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해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가 무법임을 사실상 제주도의회에서 고백했습니다. 법을 지키며 투자하는 기업을 불법적인 '자본검증위원회'란 황당한 조직을 만들어 기업 목을 죄는 反기업 행정을 해왔습니다. 바로 법을 무너뜨린 법치농단 죄입니다.**

국민여러분, 제주 미래를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이 추진하는 친환경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 중 제주의 법과 절차를 지키며 추진하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 지사의 위법한 행정권 남용으로 짓밟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하려면 돈부터 입금하라며, 도 지정계좌에 3,367억원 요구해 왔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돈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강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협박입니다. **지구상 어느 국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만행입니다. 이런 무법 • 반기업적 만행은 제주오라관광단지만이 아닙니다. 반기업 무법적 만행은 제주드림타워 행정갑질, 녹지외국인국제병원 허가취소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국내외에서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법과 특별자치도법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법을 지키는 기업에겐 '지옥섬'이 됐습니다.**

둘째 죄, '정부 신뢰'를 무너뜨린 행정농단 죄

원희룡 제주정부 6년은 포퓰리즘과 무능 • 무책임 • 무법 자체였습니다. 이젠 원희룡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도민은 믿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온 갈팡질팡 포퓰리즘 통치로 제주정부 행정 신뢰성과 신인도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제주도 불행은 원 지사 당선부터 시작됐습니다.** 원 지사는 당선 후 이미 허가된 드림타워 58층을 절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기존 정부가 법으로 허가한 사항을 말 한마디로 저지른 **반기업적 만행**입니다.

어이없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동일한 사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들어서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올 3월 시행승인 고시가 떨어진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놀랍게도 특혜를 줬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두고 도지사가 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줬다고 경고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인허가 특혜는 기존 골프장 부지를 매입 • 편입시켜 편법개발을 허가한 것입니다. 원 지사 스스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개발사업을 불허하겠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특혜** 후에는 인허가 승인을 해주며,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타 사업과 달리 일사천리로 추진됐습니다. **이 부분이 공정성을 상실한 특혜와 편법으로 검찰이 조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무법적인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3,373억원을 입금하라는 초법적 행정조치와는 180°다른 것입니다.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며, 무법적으로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3,373억 원부터 내라는 황당한 예치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행법을 초월한 불법적 직권남용을 자행한 제주도 정부를 믿고 국내외 어느 기업이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신뢰해야 할 정부가 행정을 농단한 공포의 불신 정부가 됐습니다.**

셋째 죄, 기업과 일자리 내쫓고, 소송당한 '무능·무책임 포퓰리즘 죄'

넘쳐나던 제주도 투자가 원 지사 통치기간 동안 투자 실적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중국자본을 배타시 하고, 유럽 • 미국 • 중동 • 일본으로 투자 다변화를 하겠다고 장담한 유치 사업은 사실상 한 푼의 투자유치도 없습니다. 미사여구로 끝났습니다. **투자 다변화와 첨단산업 유치란 말잔치 뒤에선, '의료관광을 위한 투자병원'까지 목을 졸라 기업들을 망하게 몰아 넣었습니다. 도민 모두는 속았습니다. 허풍과 무법 • 무능정책 6년에 좋은 일자리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결국 反기업 정책으로 제주오라관광단지 일자리 1만개는 사라졌고, 녹지헬스타운 좌절, 신화역사공원 일자리는 구조조정 중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도민에게 돌아온 건 경기몰락, 민생고통, 떠나는 청년뿐입니다.

미래 지도자로 변신한다고 임기 내내 서울로 블록체인 행사를 쫓아다니며 행정낭비를 일삼더니만 이젠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든다며 예능방송에 출연하느라 도정을 비우고 있습니다. 무능 • 무책임으로 제주경제를 파탄시킨 도지사 모습에 성난 도민은 예능방송에 출연하는 도지사 모습을 보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죄, 직권남용, 재량권 남용해 '도정농단한 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됩니다' 절차와 법 기준을 벗어나는 재량권은 법을 농단하고 행정을 농단하는 죄입니다. 원희룡 도정 통치 6년, 제주도정은 법치행정을 짓밟고, 도지사는 직권을 남용하고 농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직권을 남용해 법 절차를 가로막고, 수천억 원을 입금하라는 사실상 강도짓을 강요했습니다. 제주도정을 농단한 죄! 기업에게 '갑질'을 한 죄! 직권남용한 죄는 국민과 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죄,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도민을 희롱해온 죄'

국민이 알고 있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있습니다. 녹지그룹에선 내키지도 않은 사업을 정부기관이 권유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전 허가한 사업을 원희룡 지사는 법적 절차에 없는 도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개원허가 문제를 다뤄, 허가했다 말았다 하며 결국 개원이 취소됐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병원건물과 고가의 의료장비는 녹슬어 가고, 채용한 직원들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대중에 영합한 행정조치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중영합 정치가 또 있겠습니까.**

도지사의 말 바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인허가 말 뒤집기 특혜,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말 뒤집기 발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줬다가 취소하는 등, 말바꾸기에 도민은 지쳤습니다. 이제는 국민 이름으로 원희룡 지사가 저지른 죄를 역사에 기록할 시간입니다. 제주사회를 도덕적 사회, 정의로운 사회, 긍정적 사회, 법치사회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제주미래를 다시 세우는 큰 길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주미래를 걱정하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 **박 영 조**